

2024 성 도미니코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교회가 2025년 회년 여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중요한 사건에 점점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에 우리는 성녀의 삶에서 기도가 지녔던 중요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황님이 금년에 회년을 준비하며 강조하고자 하셨던 기도의 “교향악”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같은 노선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카리스마를 통하여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부의 특징적 면모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불안정한 상황 앞에서 그가 취했던 자세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교회 상황들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념적 극단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 폭력을 초래합니다. 보복과 차별을 가져오는 움직임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움직임들... 이들이 우리의 세상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두 가지 현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종교적 무지입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 시대의 이 두 가지 현실에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체험에 근거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 사회와 교회에 우세한 사고방식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수도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알비파 이단의 확산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무지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을 따르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남부에서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알비파에 맞선 십자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십자군은 교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교회의 관심사는 사회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알비파 이단에 맞선 싸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폭력이 이단에 맞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은 설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과 가르침과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진리 추구에 대한 그의 깊은 투신과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정은 그가 특히 이단에 떨어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길들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교했고,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고 그들이 참으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이면에서 성 도미니코는 깊은 내적 생활을 길러 갔습니다. 기도는 그의 힘과 식별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이 순간에 그는 사명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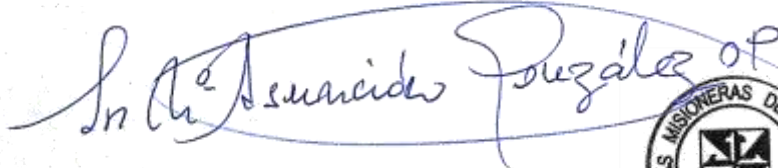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 사부의 삶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느껴지는 절망의 경향에 휩쓸리거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바라는 결실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충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살며 하느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미 하나의 표징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씨뿌리며, 꾸준하고 인내롭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론에서 말씀하시듯이, “희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아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내적 생활을 계속 길러가며,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유일한 분과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하느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희망이 모든 난관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사부의 마음 안에 타올랐던 하느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도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용과 제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

